

》》》》》》》

《《《《《《《

사랑과 責任

》》》》》》》

《《《《《《《

마가 3, 1-6

(一)

논어에 孔子와 섬공이란 사람의 대화가 있다. “우리 동네의 직공이란 사람은 그 아버지가 남의 양을 훔친 것을 고발했습니다” 이말에 공자는 “우리 동네에서 정직한 사람은 그런 것과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감추고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감춥니다. 그 속에 「直」이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가족의 윤리와 국가의 법의 질서의 대립을 볼 수 있다. 사랑과 공적인 질서가 상충이 될 때 어느 길을 선택 해야 하나? 아버지를 위하면 나라의 법이 서지 않고 따라서 남을 희생시키게 되며 법을 지키면 아버지에게 대한 사랑이 유린된다. 공자는 이 경우에 사랑을 선택 하라는 것이다. 정말 그래도 좋은가? 사랑은 法을 무시해도 좋은가? 사랑은 義를 희생해도 좋은가?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기로에 서게 된다. 사랑을 관철하려면 義가

희생되고 義를 관철하려면 사랑이 희생 된다. 國家의 法을 지키려면 個人을 희생 시켜야 하고 個人을 살리려면 法의 질서를 깨게 된다. 이것은 나아가서는 個人에 대한 사랑을 관철하려면 多數가 희생 될 수 있고 多數의 安定 第一을 내세우면 한 개인의 특수 사정을 살피 줄 수 없게 된다.

요새 우리나라의 부패상은 극치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부정식품을 위시한 가짜 속출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이런 마당에 法을 강화해서 極刑에 처한다고 할 때. 우리는 우선 전적으로 찬성하고 싶어 진다. 그러나 反面에 그 法에 處刑當해야 할 사람을 생각할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不法을 行하는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 無知에서든지 또는 비록 돈에 미쳤었다고 해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처지에서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을지 모른다. 저들을 교수대에 올림으로 비

록 不正의 풍조가 시정 된다고 해도 나는 할일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비록 그 自體가 分明한 善이요 사랑의 行爲라고 해도 決行하면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순수 사랑, 순수 善이란 그런 뜻에서 불가능 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러가지 주장이 가능하다. 가령 아무리 사랑이라고 해도 公義가 허락하는 범위안에서만 할수 있다. 사랑은 義를 내포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럴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랑과 公義가 충돌되기 때문에 고민하며 그런 주장을 받아드리면 언제나 사랑은 公義라는것 때문에 一直線을 긋지 못하고, 포물선을 긋게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문제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公義라는 것이 내 사랑의 의무에서 도피하는 온상이 되기때문에 분개한다. 아니! 사랑은 公義와의 긴장 속에서 할 수 있어야 사랑이다.

이에 반해서 사랑은 지상명령이다. 따라서 사랑은 모든 제약을 다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정말 사랑은 다른것을 다 희생 시킬 권리가 있을까? 근경에 미국으로 부터 상황윤리라는 말이 유포 되었다. 그것은 그 행위의 동기가 사랑때문이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선이라고 받아졌다. 가령 두 아이를 가진 有夫女

가 감옥에 갇혀있다. 그가 나올 수 있는 길은 임신하는 것뿐이다. 그 아이들과 남편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는 사랑도 없는 간통을 자청해서 출옥할 수 있었다. 이 女인은 사랑 때문에 한 일이니까 그 간통은 규탄할수 없다고 한다. 또 악당에게 추격당하는 한 父母가 아이 몇명과 함께 숨었다. 그런데 그중 막내아이가 울음을 터뜨린다 그 父母는 이 아이 하나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포함한 여러 생명이 위협받게 되어 결국 그 아이를 죽인다. 이 사람은 여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동기에서 그를 죽였으니 살인죄로 규탄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보편율에서 개개의 특수 사정이나 순수한 사랑의 동기가 유린되는데 대한 항의로써 동감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 경우가 公義를 깨뜨릴 권리가 있을까? 사랑은 공의를 깨뜨리므로써 그것에 의해서 삶의 보장을 받고 있는 남을 희생시킬 권리를 내포 할가? 어떤 사랑의 계명이 남을 죽여도 좋다거나 남을 희생해도 좋다고 했는가. 어떤 사랑의 계명도 단지 사랑하라는 것이지, 남을 희생해도 좋은 권리까지 그 사랑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이에 대하여 동양에는 소위 「無爲」라는 사상이 있다. 老子는 “세상이 모두 아름답다고 규정하면 이미 추

한 것이고 모두 善하다고 하는 것은 벌써 악한 것이다. 그러니 聖者は 無爲之事에 머문다”고 한다. 규정하고 그것에 따라 行爲하면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 하는 것이니 차라리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이 사람의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生活人의 고민을 나타냈음에 틀림 없다. 무엇이나 행동하고 보면 순수한 것이 되지 못하는데서 고민한 결론이다. 그러나 이것은 소원이지 생활에 적용할 수 없는 知慧다. 그것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人間을 추상화 한 것이다. 사람은 決行하므로써만 存在할 수 있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無爲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가령 내 옆집에 강도가 들었다. 살려달라는 비명을 듣고 뛰어 들면 그 강도를 죽여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가만있자!」고 했을 때 그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나? 그의 無爲는 결국 강도 만난 사람을 희생시켰다. 여기 한 악한이 내품의 子息을 죽이려 한다. 그때 내가 無爲할 수 있나? 無爲하면 내 子息은 죽는다.

人間을 추상화 하지 않으면 無爲하는 나도 실은 무엇인가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면 사람은 「行爲」할 수 밖에 없음을 알게 된다. 사람이 自己를 도피하지 않으면 적어도 둘 이상의 엄연한 現實앞에 서 있는 自己

를 볼 것이며 그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자기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를 선택 하면 다른 하나는 희생되는 것이다.

(二)

本文은 예수가 한편 손 다른자를 고쳐준 것이 문제가 되어 논쟁하는 내용이다. 不具者로서 어두운 삶을 보내는 한 사람을 그 불행에서 해방시켰다는 사실 자체를 환영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유대 종교지도자들에게라! 그런데 왜 저들이 예수에게 항의를 해야 했는가? 우리는 저들을 단순히 질투 때문이라고 처리해서는 안된다. 저들은 예수의 그 행위 자체가 善한 것을 몰라서 아니다. 그러나 그 善한 일을 그대로 받아 드릴 수 없는 엄연한 또 하나의 현실 때문이다. 즉 그것은 安息日 계명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安息日是 쉬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율법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써 그것을 침범하는 것은 死線을 넘는 것과도 같았다. 구약에서 이미 안식일을 철저히 설 것을 이방인 노예 집승에게 까지 적용했는데 포로 시대 이후에 이달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民族 사이의 계약

으로 믿고 그것을 침범하는 것은 바로 이 계약판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것이 후기 유대교에 와서 구체화 되어 그날에 해서는 안 될 것을 규정했다. 미쉬나(Mishna)에 의하면 39개의 해서는 안되는 일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병고치는 일도 금하고 있다. 그러나 랍비들에 의해서 한 생명이 시간을 다투는 병만은 고쳐도 좋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날은 종교적으로나 일상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날 하루를 철저히 일상생활과 단절하게 하므로써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나고그」에 모여서 율법과 예언의 해석을 듣고 기도하는 날이 될 수 있었고 노동에서 해방됨으로써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同時에 유대인에게 큰 짐이기도 했다. 유대 문헌중에 압바 타흐나(Abba Tachna)의 얘기는 그런 실상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한 사람이 내일 먹을 식량을 지고 해지기전 즉 안식일이 이르기전에 집에 도착하려고 길을 재촉하고 있는데 한 문둥이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만났다. 그를 구해줄 의무를 느낀 이 사람은 난관에 부딪힌다. 둘은 동시에 할 수 없고 그를 구해주고 그 식량을 가져갈려면 해가 도중에서 지므로써 안식일 법에 걸린다. 결국 그는 그 문

둥이를 업어다 주고 다시 와서 식량을 지고 갔다. 이런 경우에도 그는 안식일법에 의해 처단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 했으나 대답은 없다. 이것은 결국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들이 예수에게 항거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록 선한 일이라도 그것을 용인하면 安息日法, 나가서는 기존법 전체에 혼란이 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파괴할뿐 아니라 동시에 그안에 많은 善한 것을 파괴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예수는 安息日의 계율이 그 이상 불필요하다거나 침범해도 좋다고 하지 않고 안식일 법의 意味를 묻는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좋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좋으냐? 죽이는 것이 좋으냐?”

質問 자체는 언제나 대답을 결정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은 자명적이다.

이 질문 자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① 율법주의자이면 이러한 질문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法的 角度에서 「安息日에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질문은 법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법 이전의 차원에서 묻는다.

② 安息日에 하지 말라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고 물음으로 써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데서 그 의미를 묻는다.

③ 이 질문은 안식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 전체에 적용되는 물음이다. 이것으로 다른 날에 대해서 안식일을 구별(거룩함)하는 관념을 철폐해 버린다. 이 이상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는 따로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예수의 이 물음 자체가 안식일의 意味를 혁명적으로 다시 해석 할 수 밖에 없는 길을 터 놓았다. 그런데 이것은 安息日에 대한 법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계명, 기존의 율법 전체에 관련이 있는 것이다.

법 또는 기존 질서에 대해서 단순히 '그렇게 하라 또는 하지 말라니까 그럴 수 밖에 없다'라는 맹목적인 복종에 대해서 이 질문은 그것이 왜 그래야만 하느냐를 이해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 한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법에 복종하되 그 原點에 다시 돌아가 보라는 것이다. 즉 그 계명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복종 하라는 것이다. 무엇이나 법적으로 규정 지어버리면 그것은 一定한 상황에서는 타당하나 동시에 다른 상황에서는 그 본래의 뜻과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법에 이렇게 썩어져 있지 않느냐고만 고집하는 것은 「儀文의 노예」로서 「書記官」의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나 죽이는 것이 옳느냐? 이 질문은 그 계명 이전의 원점에 돌아가서 묻는 질문이다. 이러한 물음의 태도는 기존법의 의미를 되찾게 함과 동시에 그것을 상대화해 버릴 수 있다. 가령 예수는 이혼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왜 그런 법이 설정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그것은 人間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女子에 대한 男子들의 횡포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결혼의 의미를 원점(창조당시)에 돌아가서 다시 풀이함으로써 그 법을 상대화해 버린다(마가 10, 1 이하). 계명을 지킬 때에 「……때문에……이법을 제정해 준 것이다」의 「무엇때문에」를 물어야 한다. 안식일법은 무엇 때문에? 그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선을 행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안식일은 무엇 때문에?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마가 2, 27). 이러한 본래의 뜻을 밝히면 어쩔 수 없이 현행법의 조문은 파괴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질문은 동시에 안식일을 非神話化해 버린다. 이날만 지키면 특별한 복이 있으리라 또는 이날을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는 사고는

그날을 삶과 유리 시켜서 神話化한 것이다. 유대교의 한 랍비는 안식일을 두번만 철저히 지켜라 그러면 네 구원은 보장 되었다고 했다. 이것은 이날의 神話化다. 神話化란 日常生活과 유리 시켜서 절대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에 선을 해야 하나 악을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은 그날에만 해당되는 물음이 아니라 사람의 삶 전체, 즉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그 어느날에나 해당되는 질문이다. 이날만 거룩하게 한다면 다른 날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 없다는 말이 된다. 반면에 이날의 특수 의미를 철폐함은 이날의 뜻을 삶전체에 해당 시킨 것이 된다.

하여간 예수이 이 질문은 그 이상 안식일은 어떤 의미로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리 놓는 거룩한(구별된) 매개물일 수 없음을 나타 낸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질문을 기존의 모든것에 적용한다면 땅위에는 절대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질문은 삶은 決斷이지 無爲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밝힌다. 즉 삶은 <죽이느냐 살리느냐,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이지 그 중간은 없다는 말이다. 유대교는 이안식일법으로 삶의 완충 지대를 삼았다. 따라서 이날만은 「거룩한 無爲」가 허락된 것으로 알았다 宗教의 계율은

곧잘 현실에서 초연하게 하므로써 현실에서 도피하는 발판이 되게 한다. 그러나 예수는 이날의 특수 의미를 제거하므로써 현실에서 외면할 수 있는 구실을 봉쇄해 버렸다. 삶은 행위하는데서 결정된다. 따라서 하지 않았다 라는 中立的인 입장에서 책임 회피는 삶의 회피와 같은 것이다. 「하지 않았다」로 책임회피할 수는 없다. 하지 않으므로써 일어난 책임도 져야 한다.

예수의 이 질문은 온갖 무책임한 완충지대를 소탕한다. 이제는 「살리지도 않았고 죽이지도 않았다 또는 선도 악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 내게는 책임을 묻지 말라」는 따위의 도피구를 봉쇄한다. 미워하느냐 아니면 사랑 하느냐, 돕느냐 아니면 방해 하느냐, 파괴하느냐 아니면 건설 하느냐 둘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된 것이 삶이지 그 중간은 있을 수 없다. 이러므로써 삶은 그때 그때 둘중의 하나를 결단할 때만 가능한 책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위 공평무사함을 보장하는 온갖 기존질서는 그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三)

이제 우리는 중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 예수의 이러한 물음과 그뒤에

다른 행동은 유대 지도자들의 분노를 사게 했다. 本文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에서 헤롯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처치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는 저들의 분노를 善意로 해석할 수 있다. 그의 이 행위가 公的인 秩序를 깨뜨리는데 대한 의분일 수 있다. 예수의 행위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행위인 것임은 틀림 없다. 그러나 그의 이 행위가 기존 질서를 파괴했다. 이런 희생은 사랑 때문에 정당화할 수 있는가?

안식일법에 대한 예수의 질문은 정당하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안식일법은 변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변혁되어야 할 것을 전제하므로써 현행법의 파괴에 대한 책임은 안져도 좋은가? 현행법이 비록 그릇된 면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파괴할 때 그것을 의지해서 세워진 많은 선한 내용이 희생될 것이다. 이 희생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의 이 행위는 숨어서 한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모인 회당에서 었다. 그 가운데는 예수가 안식일법을 지키느냐 아니면 저의병을 고쳐 주느냐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마당에서 그가 사랑을 決行한 것은 決斷이다. 이 결단은 다른 하나를 희생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며 그것에

따른 수난을 각오했어야 할 것이다. 저들은 예수의 이 決行을 보고 예수를 죽일 음모를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예수도 죽을 각오 마저 했어야 한다. 이 각오는 책임 의식이다. 이러한 책임 의식이 없는 행위라면 그것은 무책임한 행위다. 무책임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수난을 각오하지 않은 사랑은 센치이지 사랑은 아니다. 비록 사랑의 행위라고 해도 그것은 저질로 될 수도 없고 그 자체를 권리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사랑마저도 다른 것을 희생할 권리는 없다. 이 희생에 대해 책임질 각오를 하는 것이 수난의 각오다. 사랑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랑하려면 그것에 對立되는 또 하나의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 다른 현실을 모르고 하는 사랑은 무책임한 행위다. 예수가 만일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법을 파괴할 때 그 결과가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각오를 하지 않았다면 무책임한 행위가 됐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하는 예수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복음 기자들은 이 예수의 행위가 그의 죽음의 이유중에 하나인 것을 나타낸다. 同時に 예수는 이런 행위를 숨어서 한 것이 아니라 들어내 놓고 했다고 전한다. 마치 그것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홀로 짊어 지려는듯이.

이것은 孔子가 자랑하는 숨겨주는 행위와는 전혀 다르며 老子的 無爲는 더욱 아니다.

(四)

行爲한다는 것은 決斷한다는 말이다. 決斷은 黑白의 사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도 저쪽에도 善한 것과 악한 것이 뒤섞여 있는 그들에서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도 저것도 완성하는 완전한 행위란 있을 수 없다. 이것도 저것도 해하지 않으려면 行爲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人間은 行爲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行爲한다는 것은 결코 완전으로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責任의인 存在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점은 佛敎나 서양의 스토아 철학이나 또 중세기의 기독교의 聖者의 이미지와 다른 人間觀을 나타낸다. 우리는 성서 신구약을 통해서 소위 성자를 볼 수 없다. 그안에 어떤 인물도 완전하지 않다. 저들에게는 놀라운 선한 면이 있는가 하면 규탄을 받아야 할 추한 면이 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서에서는 저들의 이 善한 면을 강조할 때 그 반면 즉

그 弱點을 폭로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모세, 예언자들, 다윗,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 바울등도 그렇게 추앙하고 있으나 저들의 추한 면이나 잘못된 것을 거리낌없이 폭로한다. 만일 완전한 者가 구원을 받는다면 저들에게 구원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참을 위해서 과감했다. 죽음을 내놓고 싸울 수 있었다. 이것은 저들이 완전을 지향한 사람들이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단지 저들은 責任의인 存在이기에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왜 사랑을 위해서나 의를 위해서 이 처럼 무능한가? 그것은 責任의식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한마디로 하면 行爲하면 반드시 어떤 것이 희생될 것을 보고 있고 그 희생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무능한 것이 아닐까? 성서의 하나님은 절대로 원만한 人格을 기르는 것이 그의 뜻이 아니다. 아니! 책임적인 存在를 요구하는 하나님이다.

책임을 질 작오를 해라. 그러면 모든 것에서 자유할 것이다. 책임을 지려는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